

너와 나의공원,

함께 지키는 愛티켓

- 풀과 나무, 기념물과 시설물을 소중히 보호해 주세요
- 공원 시설물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 음식물 반입과 취사행위는 피해 주세요
- 흡연과 음주, 소음은 삼가세요
- 안전을 위해 자전거, 퀵보드 등의 사용은 삼가세요
-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은 스스로 치워 주세요

경의선숲길 안내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이용시간 상시개방

문 의 경의선숲길공원 관리사무소 02-719-8830

교통안내 * 지하철

연남동구간/ 가좌역 (경의선), 홍대입구역 (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와우교구간/ 홍대입구역 (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서강대역 (경의선)
신수 대흥 염리동구간/ 공덕역 (6호선), 대흥역 (6호선)
새창고개 원효로구간/ 효창공원앞역 (6호선)

* 버 스

각 공원 입구 도보 5분 거리 버스정류장 위치

* 자세한 사항 뒷면 지도 참고

다시, 푸르른 공원으로

재생과 숲을 의미하는 두 마크를 결합한 형태의 재생공원 마크는 쓰임을 다 한 공간을 재생시켜 만들어진 친환경 생태공원을 의미합니다. 경의선숲길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도심과 숲이 공존하는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산과공원 parks.seoul.go.kr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화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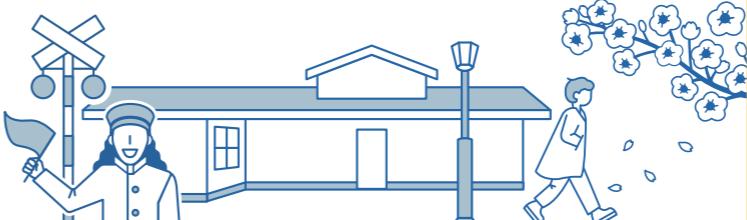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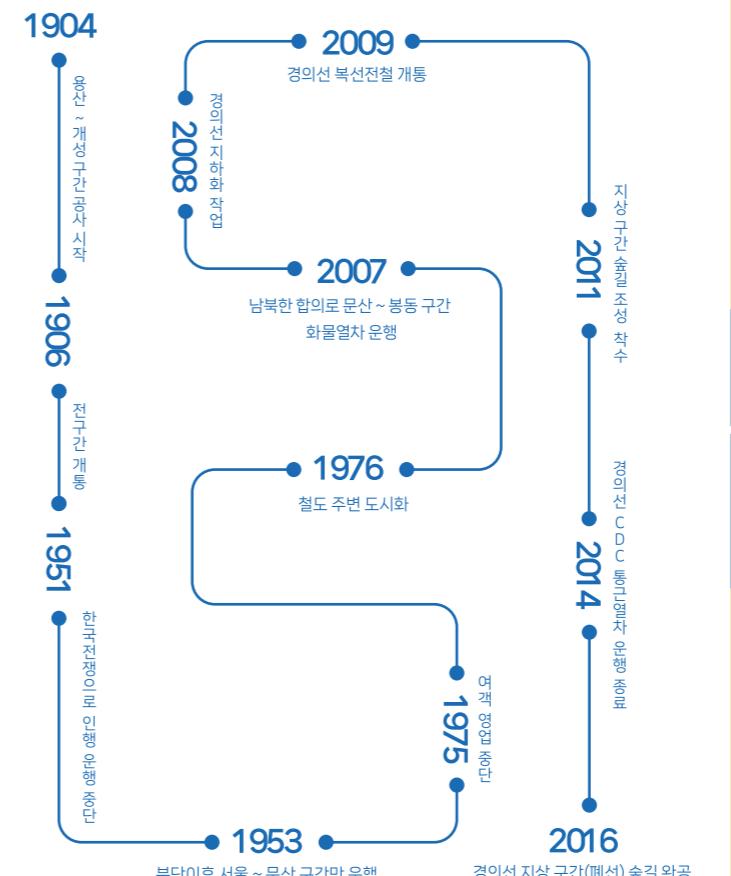
경의선 숲길

버려진 철길에서 시민들의 문화 산책로로

경의선 숲길은 마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이어진 총 6.3Km의 선형 공원입니다. 기존의 공원형태를 벗어나 길게 이어진 숲길은 2012년 3월 대흥동 구간을 시작으로 염리동, 새창고개, 연남동 구간, 원효로, 신수동, 와우교 구간이 2016년 전체조성되었습니다.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숲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로로 도심과 숲,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경의선운행연대기

철길에서 숲길로 110년을 달려온 발자취
경의선의 '경'과 신의주의 '의'를 따서 경의선이라 불렸다. 경의선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 1904년도부터 2년에 걸쳐 건설한 철로다.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였지만 1950년 남북이 분단 되면서 경의선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반쪽짜리 철길로 남게 되었다.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약 1.2km (도보 약 30분)

연남사거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말한다. 숲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있는 기찻길과 간이역을 닮은 쉼터를 보며 이 길이 과거 철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길에 뻗은 은행나무 행렬과 860m의 긴 물결을 따라 걷다보면 경의선 숲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주요장소
잔디마당 / 은행나무길 / (세교천을 재현한) 물길 / 철길

와우교 구간

약 370m (도보 약 15분)

홍대 앞 와우교부터 서강대역까지의 숲길이 '와우교구간'이다. 이 곳은 곳곳에 남아있는 철길과, 기차가 운행되던 당시 '땡땡거리'라 불리던 철도건널목을 그대로 복원해놓고 있어 여러 구간 중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향수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장소
땡땡거리 / 책거리 / 전망데크 / 기찻길 옆 예술마을

신수·대흥·염리동 구간

약 1.3km (도보 약 30분)

마포구 신수동 일대 구간으로 선동물천, 무쇠막 등 마을의 옛 기억을, 대흥동 일대 구간으로는 봄철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염리동 일대 구간으로 메타세콰이어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있는 녹색 쉼터이다.

주요장소
철길 소년·소녀상, 간이역 쉼터 / 선동물천

새창고개·원효로 구간

약 960m (도보 약 25분)

공덕역에서 효창역까지 이어진 구간으로 구불구불한 고갯길과 탁 트인 전망 테라스, 자연암석 등 옛 정취를 맛볼 수 있다. 원효로 구간은 용산구 문화센터까지 이어진 구간으로 경의선 숲길의 시작점이다. 경의선 철길의 오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주요장소
버드나무쉼터 / 히스토리 벽 / 숲길사랑방

